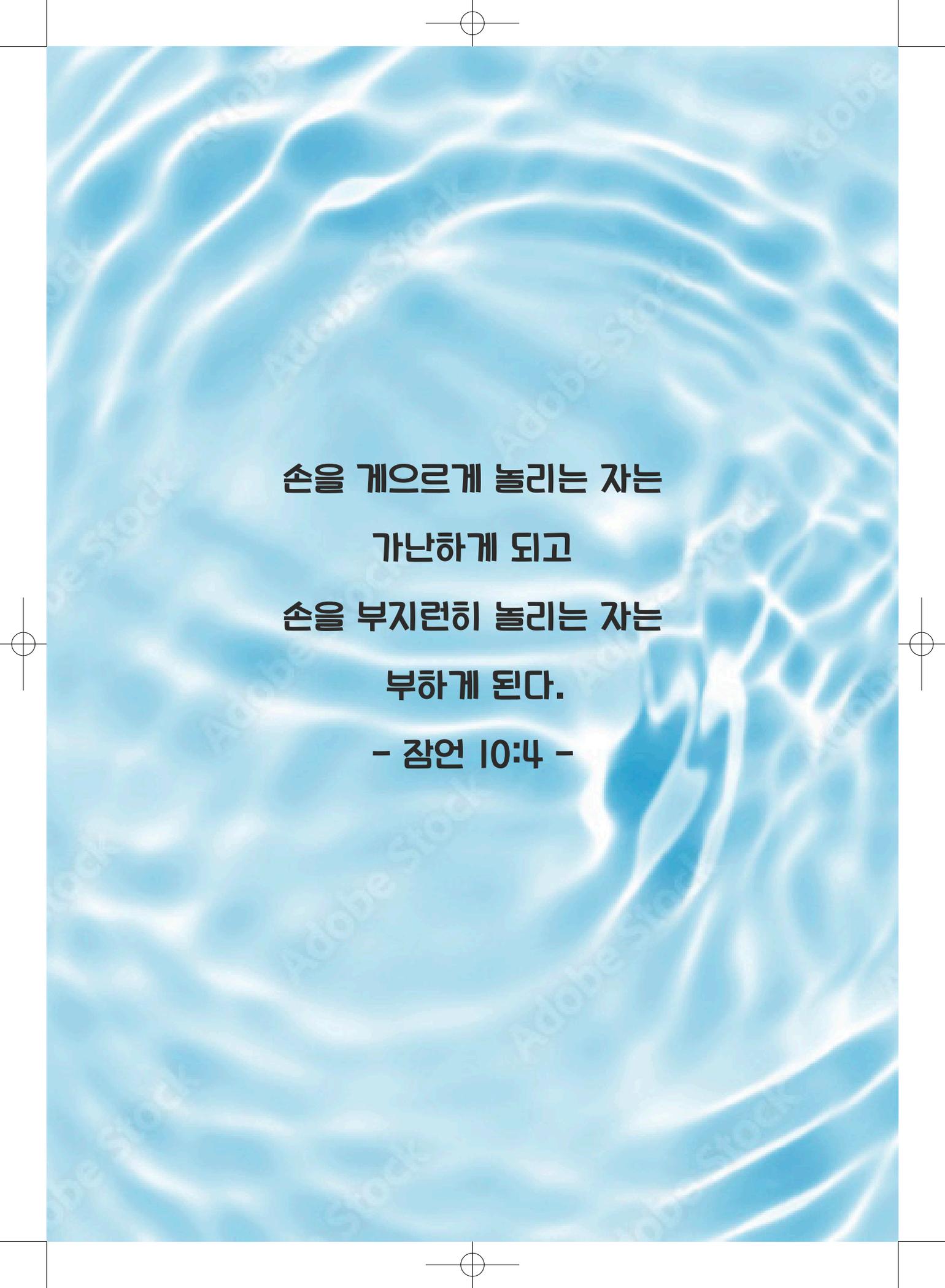


2022

희
망
의
Festiva
l

드리미학교 4기 김범준
신앙과 배움, 삶과 공동체를 빛다.

Dreamy School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히 놀리는 자는
부하게 된다.
- 잠언 10:4 -**

내가 깨끗한 그릇으로 빚어지는 과정

이제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빛음 소감문

드리미학교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빛음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빛음이라는 수업은 저의 신앙, 믿음에 관하여 점점더 발전하는 수업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향한 저의 믿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며 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나, 우리의는 왜 성경을 읽어야하고 말씀묵상을 해야하는지 등의 신앙적으로 많이 성장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이름: 김범준

나이: 17세

생일 2006년 9월 19일
쌀쌀한 가을 경남 진주출생
항상 밝고 친절하다.

삶의 좌우명은 모든것에 성실하며
끝까지 하자이다.

존경하는 인물로는 시인 윤동주,
장군 이순신, 시인 이육사(이원록)을
가장 좋아하며 나를 생각해 주는
모든 사람과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에게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

가장 좋아하는 말씀으로는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립보서 4:6~7)라는
말을 저의 인생에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다.

목차

- 사명선언문-
- 신앙에세이-
- 언어빛음 감상문-
- 정의 에세이-
- 공동 성결서약문-
- 절제하는 삶의 원칙-
- 성결 에세이-
- 정직 에세이-
- 평화 에세이-
- 지역 연구 인물 인터뷰
문제해결 프로젝트-
- 3P창의활동 계획서-
- 빛음 2단계 소감문-
- 미리쓰는 '나는 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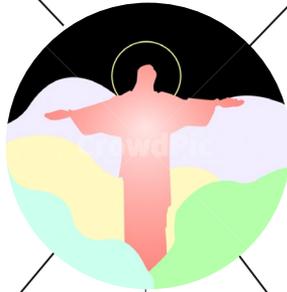
사명선언문 (김범준)



성경을 전하는 작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풀어서 아이들과 성경을 처음보는 사람들도 이해하기 쉽게 성경을 기반으로 한 책을 쓰는 삶을 산다.



정직한 삶을 사는 경찰
경찰이므로 사람들이 폭력과 살인 때문에 불안에 떨며 사는 것이 아닌 평화롭고 사람을 믿으며 살아가는 세상을 만든다.



하나님을 나의 삶에 중심으로 살아가는 드리미인

나의 삶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를 찾아가도록 노력한다.



이웃을 사랑하며 나누는 사람

내가 잘하는 일인 만드는 것을 이용하여 이웃들에게 필요한 제품을 만들도록 노력한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가정의 남편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통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가정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남편이 되겠다.

Action Plan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하게 하는 작가 (김범준)

평화롭고 믿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경찰

이전에 써져있던 책들을 찾아보기.
글쓰기에 관한책 1달에 2권이상 읽기.
성경을 매주 2장이상 읽기.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꼈던 점 계속 정리하기

어떻게하면 경찰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범죄심리학등 필요한 책들 1달에 1권이상 읽기.
평화로운 사회가 되기위한 조건 찾아보기.
사람들이 필요한 경찰이 어떤 경찰인지 알아보기

- 1.매주 성경을 2장 이상은 읽기.
2. 나의 달란트가 무엇인지 찾기위하여 여러가를 체험해보기.
- 3.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할 일을 찾고 실천하기.
- 4.어떻게하면 주님이 나의 중심으로 오실 수 있을지 생각해보기

이웃을 사랑하며 나누는 사람

성경에 나오는 물건이나 상징적인 것 찾기.
전문가(목공 선생님 등) 에게 물어보고 정확한 기술 배우기.
우리 주변에 필요한 사람 찾기.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 찾아보고 연습하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

좋은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구하기. 잘들어 주고 경청해주기.
나만 힘들다고 말하지 않고 말하는 내용 경청하기.
내가 어떻게하면 다정한 남편이 될 수 있을지 찾고 생각하기.

신앙 에세이

나는 드리미 학교에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나는 왜 죄인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는데 드리미학교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하여 써보려한다.

우선 복음 사경회로 바뀐 저의 모습이다. 1강은 다윈의 진화론과 창조론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번 강의를 듣기 전까지는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우고 교회에서는 창조론에 관한 것을 알려줘서 어떤 것이 맞는건지 헷갈리고 어려웠는데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진화론이 틀린이유 예를 들어 진화 과정 중의 중간단계의 화석의 없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가며 말씀을 해주시니 진화론이 왜 틀렸고 창조론이 왜 맞는지를 알 수 있었던 시간이 있어서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키워주고 창조론과 진화론 사이에서 고민하고 오히려 진화론이 더 맞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저를 창조론이 맞구나라고 생각을 바꾸게되는 강의였다.

2강은 복음에 관한 것이었다. 복음은 기독교적 단어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말

하는 기쁜 소식이 모두 복음이다라는 내용에서 내가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적 단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를 깨달았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인간이 지은 죄는 인간이 책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내용을 듣고 정말로 예수님은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우리도 앞으로는 우리가 매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에 대신 사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야겠다고 생각했다.

3강은 헌신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헌신하지 말라는 내용에 의아했다. 여태껏 교회에서 배워온 내용은 헌신하라 하나님께 나를 헌신하라는 내용이었는데 선교사님은 헌신을 하지말라고 하셔서 의아했다. 하지만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헌신한 호세아와 고멜에 대한 내용을 말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다른 사람에게서 아이를 3번이나 임신하고 와서 반성하지 않고 심지어 집에있는 돈이 될만한 물건만 챙기고 아이들은 그대로 집에 놔두고 가버렸다는 내용을 듣고 세상에 어떻게 저런사람이 있지? 나라면 고멜을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호세아는 달랐다.

헌신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오셔서 고멜이 경매장에 헐값에 팔리고 있다고 너의 돈으로 사와서 들로 데려가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하셨다. 호세아는 헌신했기 때문에 고멜을 자기 돈으로 다시 데려올 수 밖에 없었다. 호세아는 고멜을 들로 데려가 사랑한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이 너가 사랑한다는 말을 알아들을 때까지 다른 말로 계속 얘기해줘라고 말씀하셨다. 이때까지만해도 저는 제가 호세아이고 고멜이 하나님을 믿지않는자들 이라고 생각했다.

그 뒤에 하나님이 호세아 곁에 앉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나의 마음이 이해가 가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다. 고멜은 다른 누구도 아닌 저였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이때까지의 저의 모습을 돌아봤을때 죄 밖에 남지 않은 듯한 기분이었다. 이번 강의를 듣고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 인

간을 죄를 저질러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과 인간은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면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저는 계속 하나님께서 저의 중심이 되어 주시라고 기도하고 저 자신도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 4강은 믿음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번강의는 제가 학교에 온 이유인 믿음을 채워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되는 강의였다. 믿음은 믿어지도록 설계되어있다. 믿음은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 대상을 겪음으로서 어느 대상을 믿을 수 있는 것이 라는 것을 배웠다. 4강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힘든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배운점은 내가 여태껏 열매만을 바라보고 있었구나를 알게되었고 내가 어떻게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기를 수 있을까를 알아가는 강의였다.

4강에서 특히 기억나는 부분은 하나님의 제자중 한분이신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인데 강의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베드로가 조금 바보같고 순수한 청년같은 이미지였는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3번말하고 하나님이 죽고 다시 부활하여 돌아오신 후의 예수님이 돌아오셨을때 베드로는 이전의 베드로와는 달라졌다고 느꼈다. 그리고 요한이 자신이 가장 먼저 알아차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른척했다는 죄책감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말해주니 베드로가 반대편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바로 바다에 뛰어 들고 예수님께 가서는 아무말도 못하였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넌 이제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드디어 베드로가 인정받았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나는 과연 예수님께 저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과 만약 나였다면 다른 사람들이 압박하는 상황속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하는 강의였다.

다음은 고난주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교에 와서 고난 주간으로 처음 금식도 해보고 금식 기도도 처음 해봤는데

내가 가장 뜻깊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이다. 학교를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는데 고난 주간에 대하여 배우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여 주신 것을 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라고 깨달았다.

마지막으로는 과연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써보려 한다.

먼저 제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보려 한다. 원래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제가 혼자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말하지만 정작 살아계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대답하는 저를 보고 저는 아직 제가 예수님을 믿고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앞으로 저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을 계속 궁금해하며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려 한다.지금까지의 저는 많이 부족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말할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삽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저의 중심이자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중심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살아갈 것이다.

언어 빛음

이 수업을 듣기 전까지의 저는 우리나라에 대한 언어가 중요하다고 학교에서 배우기는 했지만 한국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수업을 들으면서 한국어는 영어 중국어 등 다른 나라보다 더 뛰어난 언어를 가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번째는 한글의 특징을 배울 수 있었다.

1. 한글의 특징

영어나 중국어 등 여러나라에서 쓰는 언어들이 말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화자 중심의 언어인 것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언어인 한글은 청자 중심의 언어로 듣는 사람이 더 알아듣기 쉽게 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타인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말투가 우리나라의 예의라는 이미지와 잘맞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2. 다양한 표현들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의 언어보다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은 yellow 정도로만 표현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노란색을 노란색,누런색,밝은 노랑,황색 등 여러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선생님은 이와같은 것을 근거로 들어서 우리나라가 노벨 문학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정받은 시와 논문들이 영어 등으로 번역되면 그 원래 의미가 번역되기 힘들어서 평범한 글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한글

은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 언어인 것이다.

3. 한글에서 조심해야 할 점

한국어는 서술어가 뒤쪽에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고 오해하지 말고 문장 끝에 나오는 서술어까지 들어봐야 한다.

두 번째 내용은 성경에서 '언어'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정리해 볼 수 있었다.

창세기에 있는 내용으로 예를 들면, 죄 이전과 이후에 아담이 사용했던 언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죄가 없던 이전에는 서로 사랑하며 닦하지 않고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라고 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창세기 2:23)

죄 이후의 언어는 아래 구절에서 보여진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창세기 3:12)

아담이 하와를 닦하는 것에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 저는 죄가 사람의 본성을 이끌어 내는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했다.

성경에서는 언어 사용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29)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편 141:3)

하지만 지금 우리는 과연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며 살고 있을까? 나는 위의 성경 말씀들을 읽고 가장 많이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다.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많은 비속어를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번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사용하는 언어를 많이 신경쓰고 더러운 말은 결코 입에 담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정의 에세이

이번에 정의에 대하여 생각한 내용을 적어볼 것이다.

본문에서는 나는 이번에 가치기초소양에서 배운 도둑질과 정의의 개념,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 정의롭지 않은 사회를 적어보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가치기초 소양을 배우면서 어떻게 느껴졌고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정의로운 생활에 대한 다짐과 생각을 적을 것이다.

첫번째로 도둑질과 정의에 대해서는 내가 정의라고 하면 그냥 자살하려는 사람을 구하고 불타는 건물에서 사람을 살리는 등의 커다란 사건들만 정의라고 생각해 왔었다. 하지만 이 수업을 듣고 정의가 뭔지 생각을 해보라고 하셨을때 사람을 구하는 등의 커다란 것만이 아니라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도와주고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줍는 것도 우리 사회에 대한 정의라고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다.

도둑질에 대해서는 도둑질을 해본 경험이 있으면 적어 보라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나는 도둑질 같은것을 안하고 살았다 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하지만 수업을 듣고 내가 어떤 도둑질을 했을까 라고 생각 해봤는데 어렸을때 내가 초등학생때 어머니의 지갑에서 돈을 가져가서 내가 먹고싶은 것을 먹으면서 놀려고 했던 것, 누나의 화장대에 있는 돈을 가지고 가서 마음대로 썼던 것, 길거리에 버려져있는 돈을 경찰서에 가져다 줘서 주인을 찾거나 주인이 근처에 있으면 찾아서 돌려줘야하는데 그런 생각도 하지않고 친구들이랑 놀때 마음대로 쓰면서 놀았다.

도둑질에 대하여 배우면서 저는 여러가지로 나는 도둑질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게되고 반성하고 도둑질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다시한번 알게되었다.

두번째로는 콜버그의 도덕적 발달 이론에 대하여 적을 것 이다. 콜버그의 도덕적 발달 이론에 대한 수업은 나에게 많은 깨달음을 준 수업이다. 도덕적이라는 말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저는 도덕성이 엄청 높은 사람인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 수업을 들으면서 나보다 더높은 수준의 도덕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의 수업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어떠한 단계의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더 높은 단계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 수 있었고 앞으로는 내가 어떠한 일이 생기면 어떠한 방법으로 일을 해결해야 더 높은 단계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위해 다른 사람의 시선, 정해놓은 법 뿐만 아니라 저의 종교적과 양심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고 나머지 단계도 다 잘 지키며 도덕적인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세번째로는 정의롭지 않은 사회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정의롭지 않은 사회는 서로 존중하지 않는 사회, 어려운 사람을 돕지않는 사회 폭력과 언행으로 서로에게 상처주는 사회,거짓말로 인해 신뢰가 깨진 사회로 나누어 보았다.

서로 존중하지 않는 사회는 장애인 차별,인종차별,저작권 침해를 사례로 들며 생각해 보았다.

장애인 차별은 우리가 지금도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편하다고 느끼는 곳들이 몸이 불편하신분들은 얼마나 불편할지 예를 들면 계단으로만 되어있는 건물을 다리가 아프신 분들은 올라가기 어렵고 심하면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 그것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인 버스나 택시를 타는데 불편함 취업을 하는데 불편함을 갖는 등 장애인 현재 사회에도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 많이 있고 또 인종차별의 문제 현재 사회에도 동양인에게 눈을 찌는 행동을 취하는 등 아직도 인종 차별의 문제가 심각하지만 예전에는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주지않고 백인들과 흑인들의 대중교통의 자리에 차별을 두는 등 인종차별의 문제가 심했다. 인종차별 장애인 차별의 문제 말고도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하는 등의 문제도 심하였다고 느꼈다.

어려운 사람을 돕지않는 사회는 3가지 소주제로 나누어서 기부를 꺼리는 이유, 도움주기를 망설이는 이유, 방관자로 나누어보았다.

왜 내가 해야하는가, 왜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도와야 하느냐는 의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돕지 않는데 왜 나는 도와야 하느냐는 질문이 있다. 이것은 '방관자 효과'와 관련되어 있다. 방관자 효과의 예시로는 1964년에 뉴욕 퀸즈에서 여성이 잔인하게 죽고있는데 누군가는 경찰에 신고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렇듯 지금 우리 사회에 누군가는 하겠지라는 등의 생각에 대하여 쓰고 도움 주기를 망설이는 이유로는 저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작은걸 시작으로 나에게도 무리한 부탁을 할까봐 피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대부분이 금전 문제가 많고 또 자기가 도와줄 때 크게 많이 도와줘야겠다는 책임감 같은게 생겨서 내가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과 부담스러워서 안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부를 꺼리는 이유는 우선 기부란 일반적으로 자선이나 대의를 목적으로 대가 없이 내놓은 것을 말한다.

사람들이 기부를 꺼리게 만드는 가장 큰 두 가지 요인은, "왜 내가?"라는 질문과 함께, 첫 번째로는 구호 단체에 대한 불신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부한 부대비용의 대부분은 인건비에서 나온다. 구호 단체 직원이 모금한 돈을 전달하러 남미로 날아가는 비용이 우리가 모금한 돈에서 나올 것 이다. 한 마디로 기부금 100원을 기부해도 남미에 사는 소년이 100원을 다 전달 받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부한 부대비용의 대부분은 인건비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구호 단체 직원이 모금한 돈을 전달하기 위하여 남미로 날아가는 비용이 우리가 모금한 돈에서 나온다. 한 마디로 기부금 100원을 기부해도 남미에 사는 소년이 100원을 다 전달 받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부를 꺼리고 기부를 하고 싶지 않아하고 싫어한다고 생각한다.

폭력과 언행으로 상처를 주는 사회는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욕설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의 수위는 점차 높아져 가고만 있는 중이다. 학교폭력의 예로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심하게 일어나 다리를 든기로 가격하고 얼음덩어리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의 행동으로 전치 5주를 받는 위험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학교폭력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있다. 학교폭력 말고도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등 예전에는 우리가 가볍게

넘어갔던 폭력들도 지금은 엄연한 폭력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다.

언어 폭력은 지금 우리나라는 버스나 지하철등의 대중교통만 타더라도 청소년들이 쉽게 욕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국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의 연

구결과에 따르면 학생 중 73%가 욕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중 32%는 습관적으로 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다.

그러니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욕을 쓰는 것을 줄여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상담과 학부모,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 주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다음은 신뢰를 잃은 사회입니다. 저는 이 글을 조사하면서 지금 우리 사회도 신뢰를 잃은 사회라고 생각을 했다. 신뢰를 잃은 사회는 나라의 고위직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등의 신뢰가 깨져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이론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 그 이론의 요점은 '한 나라의 경쟁력과 행복은 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신뢰의 수준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다. '선진사회일수록 사회 밑바탕에는 신뢰가 강물처럼 흐른다'. 거짓과 상술이 판치는 사회에 신뢰가 쌓일 수 없고 신뢰가 없는 사회는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믿음과 신뢰가 생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저는 이번 가치기초소양에서 정의에 대해서 배우며 많은 것을 깨달았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잘 모르고있었는데 이번에 에세이를 먹으면서 뉴스랑 사람들이 적어놓은 것을 보니 우리 사회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은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적으면서 생각해보니 생각보다 도둑질을 한 것이 많이 있었고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어느 부분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는 장애인과 인종 차별에 대하여 알수 있어서 좋았다. 나는 이번 수업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생각보다 작고 나도 생각보다 도덕성이 그렇게 높은 사람은 아니구나를 알게되었다.

공동 성결 서약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대를 본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 고자, 이 성결서약식에 참여 합니다.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레 11:45)'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이루어가는 존재로서 성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자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었고, 구원받은 존재로서 나의 영혼과 몸, 성 에 대해 성경적인 가치와 태도를 가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둘,

나와 더불어 타인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귀한 존재임을 믿고 불건전한 성 적 농담을 하는 등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을 것 입니다.

셋,

사람의 영혼과 육체는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이성 간의 육체적 접촉을 절제하여 결혼하기 전까지 서로의 몸과 마음을 지켜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넷,

성은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사람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받아들이고 한 순간 의 감정과 호기심에 의해 성적 관계를 맺지 않을 것입니다.

다섯,

나와 타인은 누군가의 배우자이자 부모가 될 수 있는 존재임을 알고 성적인 관 계로 이어질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만들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성이 왜곡되어 표현된 포르노 영상이나 도서, 웹툰 등의 음란한 매체를 보지 않
을 것이며 만들거나, 유포, 공유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곱,
성매매나, 유사 성매매, 성폭력 등의 성적 범죄에 조금이라도 가담하지 않으며
성을 파는 일과 사는 일도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덟,
결혼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배우자와만 성관계를 맺을 것이며 배우자
를 깊이 사랑하여 상호 간의 대화와 합의로 이루어진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
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홉,
성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자신의 몸과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절제하고 균형있
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열,
성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결혼이라고 하는 안전하고도 성경적인 제도
를 신성히 여기고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다짐하는 바이며, 하나님과 부모님, 선생님들과 동료들 앞에
서 엄숙하게 서약합니다.

2022년 5월 4일 드리미학교 4기생 김범준

절제하는 삶의 원칙

자신을 억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보다 더 큰 싸움을 겪는 자는 없다.
자신을 다스리고 지배하여 나날이 강해지고 더욱 새롭게 변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본받아(토마스 아퀴나스) 중에서’

자신이 절제하지 못하는 부분

- 1) 잠을 몰아서 자는 것.
- 2) 게으르게 생활하는 것.
- 3) 말 특히(아무거나 말하는 것.)
- 4) 너무 많은 쉬는 시간을 보내는 것.

빛음 활동 중 절제하고 균형잡힌 삶에 도움이 된 활동

- 1) 나우루 공화국을 보면서 내게 많은 것이 생겨도 절제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함.
- 2) 절제에 대한 명언을 찾는 수업을 하면서 나에게 와닿는 명언들이 많아서 나를 돌아보는 수업이었다.

3)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하면서 욕욕에 관한 수업을 통하여 욕망이 어떠한 것을 불러오는지 알게되었다.

4)수업을 들으면서 절제란 우리가 생활하면서 최소한으로 지켜야할 선 이고 우리가 진리의 길에서 이탈하는 위험을 막는 제동장치이다. 라는 말이 가장 와닿았다.

5)세상의 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도록 하자고 다짐했다.

절제하는 삶을 위한 원칙

1)내가 이 물건이 왜 필요한가 실용성은 있는가? 꼭 필요한 물건인가를 생각을 해본다.

2)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왜 필요한지 적어보고 그중 정말로 급하거나 필요한 것만 산다.

3)내가 저것을 가지고 싶다 저거 너무 예뻐서 사고싶다 등의 사소한 것에 휘둘리지 말자.

4)세속적인 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지말자.

5)나에게 많은것이 있어도 나누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자.

성결 에세이

나는 성결 수업을 배우면서 평소에는 몰랐던 사회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알아보고 조사해 보고 하나님께서 왜 성결하기를 바라시고 나는 왜 성결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배우게 되었다.

처음으로는 성결의 정의와 성경에서 말하는 성결에 대하여 배우게 되었다.

이 수업을 듣기 전까지는 성결이라는 것에 대하여 잘모르고 있었는데 사전적 정의와 성경에서 말하는 성결을 배우면서 성결은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라고 배웠다, 성결을 배우면서 그에 관련된 성경 구절인

민 18:8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여호와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밭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리라” - 여호수아 5:15-

말라기 2:11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등 여러가지 성결과 관련된 구절을 배우면서 사전적인 성결만 알고있는 나의 성결과 다른점도 배우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가 성결해야 하는 이유 등을 알게 된 것 같다.

두번째로는 내가사는 시대는 어떠한 시대인가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되었다. 나는 이 수업으로 4차 산업혁명을 공부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4차산업혁명에 대하여 배우게 되었다.빅데이터, 사물인터넷,인공지능 등 내가 중학교때 학교에서 배운 것도 많고 학교 수업 시간에 많이 나와서 내가 많이 알고 있을 줄 알고

두번째로는 내가사는 시대는 어떠한 시대인가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되었다. 나는 이 수업으로 4차 산업혁명을 공부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4차산업혁명에 대하여 배우게 되었다.빅데이터, 사물인터넷,인공지능 등 내가 중학교때 학교에서 배운 것도 많고 학교 수업 시간에 많이 나와서 내가 많이 알고 있을 줄 알고 있었는데 블록체인,바이오닉스 등 내가 알고는 있었지만 블록체인,바이오닉스 등도 4차 산업혁명으로 분류 되는지 모르고 있었다,

이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모르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내용이나 다른 친구들이 조사 해서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포스트 휴머니즘,포스트 모더니즘 등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의 내용들도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배워가는 것이 많았던 수업이었다.

다음으로는 내가 성결을 배우면서 내가 생각한 성결이란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행동,생각까지 하나님을 위하고 따르는 것이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말 뿐만 아니라 마음(행동)으로 따르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을 많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말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따르는 것은 말로만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사람이 보지 않는 곳 에서도 성결하고 정작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따르는 것이란 세상의 유혹,내가 하고싶고 내가 필요한 것이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 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내가 나의 중심 즉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나의 몸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나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루는 것이다.

첫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하기를 바라시는 이유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하기를 바라시는 이유는 성경 말씀에도 있듯이 나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우상숭배 성적타락 등 여러가지 악한 것 과 구별되기를 바라신다.

나는 더 성결해 지고 싶다, 왜냐하면 지금의 나의 모습은 성결과는 거리가 많은 것 같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성결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 같지만 집으로 가면 다시 성결하게 지내고 있다는 생각이 안들고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결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바라는 자로서 좀더 성결해져서 말만 내가 그리스도인 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친구, 주변 지인 등의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며 말, 행동까지 하나님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싶기 때문이다.

현재 나의 삶에서 성결이 필요한 곳은 생각이다.

왜냐하면 첫번째 이유로는 항상 말로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지만 행동과 생각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

두번째 이유는 내삶의 기준도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지만 항상 다른 사람인 타인의 눈치를 보고 타인이 현재 나의 삶에서 성결이 필요한 곳은 생각이다.

왜냐하면 첫번째 이유로는 항상 말로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지만 행동과 생각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

두번째 이유는 내삶의 기준도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지만 항상 다른 사람인 타인의 눈치를 보고 타인이 싫어하는 것 같으면 하지않고 타인의 기분에 맞춰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의 생각이 더 성결해져서 내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몸을 소중히 여겨야하는 것, 항상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행동, 생각까지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마음가짐을 가져가야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삶에서 성결 가장 필요한 곳은 나의 생각이라고 정했다.

내가,우리가 성결해지기 어려운 이유

1번째 이유로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성과는 많이 멀다 왜냐하면 어릴때부터 학생들에게 서로 경쟁을 유도하고, 돈이 많으면 우수한 사람이고 돈이 없으면 낮은 사람이라는 사회의 인식, 우리가 따라야하는 법에서도 대다수의 많은 나라들이 동성결혼 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들을 법으로 인정이 되어있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니깐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2번째는 우리가 절제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야하는데 자신이 사고싶은 것이나 먹고싶은 것 등 원하고 갖고 싶으면 절제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만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요즘 사회에서도 자신이 가장 중요하고 자신이 하고싶은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사람들의 생각이 많아졌다, 그리고 성적,물질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에서 성결이 필요한 곳은 나는 교육과 사람들의 인식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릴때부터 교육을 받고 자라서 사회에 나가기 전까지 교육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지식을 주고 배경지식을 쌓아주는 교육이 성결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사회성을 길러야하는 학생의 나이에 친구들끼리 서로 경쟁자가 되도록 시험이라는 것을 만들고 점수에 따라서 1등,2등 등수를 매기고 서로 경쟁하게 하고있다. 교육 중에서도 학생들에게 사회에 나가면 서로 밟고 올라가야하고 점수가 높은 사람이 더 우수한 사람이고 공부를 못하면 사회에 나가서 회사에 못 다닌다 면서 공부를 못하며 낮은 사람인 것 처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들이 더 성결해지면 일단 학생들끼리 서로의 경쟁상대의 존재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서로 도와주며 같이 살아가야하는 존재로 인식하며 살아갈 것이며 사회에 나가서도 지금보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월급을 덜받고 낮은 계급이라고 해서 자신이 더 우수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보다 낮은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같은 동등한 사람이고 서로 같이 나아가는 동료라는 생각이 강해져서 학교폭력,회사에서의 따돌림,갈굼 등이 많이 사라질 것이다.

정직 에세이

주님 제가 이번에 수업으로 정직에 대하여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수업을 듣기 전까지는 정직이라고 하면 거짓말을 안하고 서로를 신뢰하며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물건 등을 훔치지 않는 것인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 수업을 통하여서 정직이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우리가 어둠던 우리들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보게되는 것 이라고 배웠습니다.

항상 수업전에 선생님께서 우리의 기도라는 노래를 부르고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노래가 어떠한 뜻인지도 모르고 선생님이 따라 부르라고 하시니까 따라 불렀는데 나중에 정직의 참 뜻을 알고 난 뒤에 다시 노래를 불러보니 선생님께서 이노래를 부르신 이유를 알게되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바라보는 정직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과거의 저는 내가 하기 싫은 것은 하지않고 내가 귀찮은 것은 하지않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은 것은 가져야하고 하고싶은 것은 해야하는 오직 저만 생각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6학년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당시에는 교회라는 곳은 나랑 잘 안맞구나 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학생이 되고난 뒤 항상 지쳐있고 힘들어하던 저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저를 구원해주셨습니다. 그 뒤에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는 계속 다녔지만 친구들과 노는 것이 더 좋고 집에서 노는 것이 더 좋아서 주님을 잘 알려고 하지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드리미 학교에 들어오고 난 뒤에 다함예배 큐티시간 신앙시간 주일예배 등 여러가지 예배와 수업을 통하여서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점차 알게되고 주님

을 알고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도 배웠습니다 주님 앞에서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많이 와닿지 않았는데 계속 기도나 묵상을 할때 이 코람데오라는 말이 계속 떠올라서 코람데오의 뜻과 원래 어떤 언어에서 왔는가 또 그에대한 찬양을 찾아보면서 코람데오라는 말이 처음보다 많이 와닿게 되어서 제가 주님께 기도 할 때마다, 코람데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정직이라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로 정직해지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믿는 것 또한 나도 다른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되는 것 뿐만아니라 코람데오라는 말 그대로 주님 앞에서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고싶습니다.

물론 저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아직도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인 아닌 내가 중심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아직 잘 모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추악한 존재적 죄인입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을 믿고싶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곁에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평화 에세이

제

목: 평화롭지 않던 지난 나와 평화로워지는 나

이번 평화를 배우면서 이전까지는 평화라는 말을 들으면 전쟁이 없고 서로 싸우지 않는 그런 세상을 보고 평화로운 세상, 평화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평화 수업을 하면서 꼭 전쟁이 없고 폭력이 없는 것 뿐만 평화로운 것이 아닌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갈등이 없는 것 또한 평화라는 것을 깨달았다.

난 평화는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사랑이란 서로를 알아가고싶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평화도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를 용서해주면 평화로운 세상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평화로운 세상이 오기 어렵듯이 사람들끼리의 사랑도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로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로에게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서로를 용서해주는 것이 아닌 서로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서로를 헐뜯고 서로를 험담하며 멀어지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서 사랑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지금부터는 사랑이 없던 관계를 느낀 나의 과거와 사랑의 관계에서 느낀 기쁨을 적어보려한다.

내가 사랑이 없던 관계를 느낀 것은 중학교부터 인 것 같다. 중학교를 들어가니 초등학교때 보다 학생수도 많아지고 그만큼 친구들이 많았다. 처음에는 초등학교때 처럼 다같이 친해질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중학교때는 많은 친구들이 모여서 그런지 나와 잘맞고 재미있는 친구들도 많았지만 나와 맞지않는 친구들도 많았다. 학기초에는 처음에만 그러고 생활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같이 공부하다 보

면 친해질 줄 알았지만 현실은 서로의 성격이 정반대여서 친해지기 보다는 더 멀어졌다. 그 뒤에 서로 사랑하기 보다는 서로 이해가 안가고 미워지는 감정만 들었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조금 양보하고 내가 그 친구를 좀더 이해했더라면 친해질 수 있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있던 나라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 보다는 나의 감정이 더 중요했던 것 같다.

사랑의 관계에서 느낀 기쁨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가까이 있었다. 바로 우리 가족들이다, 항상 뒤에서 나를 도와주고 항상 나의 편에 서있어주던 나의 가족. 이 사실을 나는 중학교 3학년때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되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항상 앞만 보고 가서 내 옆에 누가 있었는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난 뒤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변을 돌아보니 항상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엄마,아빠 항상 나를 반겨주고 칭찬해주시던 할머니, 항상 투덜대고 싸우지만 항상 나를 도와주던 누나까지 나의 곁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다음은 왜 서로 사랑하면 평화를 누릴 수 있는지,드리미학교에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지를 적을 것이다.

왜 서로 사랑하면 평화를 누릴 수 있는지 생각해봤을 때 드는 나의 생각은 단 한가지인 것 같다. 서로 사랑한다면 서로에게 맞춰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서로에게 맞춰주고 이해한다면 상대방이 자신에게 실수를 한다고 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친구들과 자신의 의견이 안맞아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친구의 의견에 맞춰서 이해해 준다면 평화롭고 사람들 모두가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드리미학교에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는 위에 내용이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드리미학교에서 평화를 누리려면 형,누나,친구들까지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해주며 서로에게 조금씩 맞춰주면 평화로운 학교가 될 것 이라고 생각한다. 아직까지는 드리미학교가 내 기준에는 평화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서로를 완벽하게 믿지 못하며 서로를 의지하지 못하는 등 아직까지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하지만 서로 점점 이해하고 맞춰주며 사랑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 드리미학교는 평화로워질 것 이라고 생각한다.

지역 연구 인물 인터뷰

이 | **이순신 장군이 일본에서도 존경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본에서는 이순신 장군님의 관하여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아서 우리가 보는 일본에서 이순신 장군님을 존경하는 글은 일부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나 역사학자들이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에게 백성이란 어떤 의미였나요?

이순신 장군님은 백성들에게 든든한 버팀목 같은 존재였다. 그전에도 의로운 행동으로 인하여 백성들에게 많은 믿음을 받았지만 임진왜란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희망이 되셨다.

왜냐하면 초반에 많은 전투에서 패배하고 조선이 멸망할 줄로만 알고있었는데 이순신 장군님의 등장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이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순신 기념관에서 일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국민이 이순신 장군님을 정말 많이 알고싶어하고 알고 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님이 국민의 영웅이고 성경이 되게 무뚝뚝할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사실은 이순신 장군님도 한 가정의 아버지로 정말 다정히 아버지였고 성격도 되게 온화한 편이다.

우리 현대인들이 이순신 장군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우리 현대인들은 이순신 장군님의 책임감을 배워야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님은 자신이 직업에 사명감을 가지고 누구보다 국민을 지키는 직업으로서 최선을 다했는데 현대인들은 자신이 편하고 좀더 쉬운일만 하려고 하고 있어서 이순신 장군님의 책임감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설사가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원래는 해설사라는 직업을 잘 알지도 못했고 이쪽에서 일할줄 몰랐는데 다른 공부를 하다가 우연히 해설사라는 직업이 알게되고 나와 적성이 맞는 직업인 것 같아서 해설사를 공부하고 해설사가 되었다.

해설사를 하면서 이순신 장군님에게 드는 생각.

정말 존경받아야 마땅하신 분이다. 항상 백성을 생각하고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셨던 분이셔서 당연히 존경받아야 마땅한 분이라고 생각한다.

문제 해결 프로젝트

주 제: 식당 음식물 쓰레기

문제 개요

학생들이 과하게 욕심을 부려서 자기가 담아온 음식의 양을 다 먹지 못하고 버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반찬을 먹지 못하는 학생들이 생기고 정작 학생들이 먹어야 할 반찬들은 모두 음식물 쓰레기가 된다. 또한 친구들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많은 양의 음식을 담아간다.

의미 있는 청중

드리미 학교 공동체, 지구

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한 정보와 지식

음식물 쓰레기 문제 관련 학생들의 의견 (설문지)

식사를 하지 못하거나 빈약한 반찬으로 식사를 하는 학생들의 의견 (해당 학생들 인터뷰)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학생들을 위해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신 영양사님들의 수고가 무시된다.

학생들이 음식을 남기는 이유(설문, 인터뷰 등)

문제 해결 방법 브레인스토밍

환경 부담금내기 (기부금으로) <보류>

포스터를 제작해서 메일로 보낸다·범준, 선양 그림·초윤

체크리스트 생성(ex스티커, 메일, 종이)

설문지 만들어서 돌리기

인터뷰 진행

문제 해결 방법

음식물 쓰레기 문제 관련 학생들의 의견, 음식을 남기는 이유 (설문지 돌리기)

캠페인 진행(포스터 제작)

체크리스트 생성(스티커)

포스터를 제작해 벽 곳곳에 붙인다. 메일도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액션 플랜

설문지 만들기(자신이 음식물 쓰레기 양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가?, 음식을 남기는 이유?)

포스터 만들기- 선양, 범준이는 플랫폼으로 캠페인 포스터를 제작(벽에 부착+ 메일로 보내기), 초윤이는 그림으로 그려서 벽에 부착

체크리스트 생성(스티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프린트한다. (스티커도 준비), 식당 문 앞쪽에 부착해서 학생들이 다 먹고 난 후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게 안내한다.

설문지 질문

음식물 쓰레기 관련 문제를 인지하고 계시나요? 예/아니요/잘 모르겠다

음식 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예/아니요/ 잘 모르겠다

음식을 남기시나요? 예/아니요

음식을 얼마나 남기시나요? 조금 남긴다, 보통 남긴다, 많이 남긴다

음식을 남기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단답형

드리미 학교 학생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음식 분배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기타 의견 및 해결방안을 적어주세요.)

장문형

역할 분담

설문지, 체크리스트- 다같이

음식을 남겼다/ 남기지 않았다

친구들을 배려해서 음식의 양을 조절했다 / 조절하지 않았다

포스터 만들기- 플랫폼(선양, 범준), 그림(초윤)

¼.과 ¾. 당신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음식량 분배가 되지 않는 것도 포스터 내용에 넣는 것이 좋을 듯.

하고 옆에 포스터를 붙이는 것.

통계- 다같이 (설문지와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통계 결과- 다같이

음식물 쓰레기 관련 의견 설문조사

주장의 활동 계획서

활동명

이순신과 예수님의 리더십

개요

목적

본 활동은 리더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리더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 드리미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사회에 나가서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리더십에 관하여 배우는 활동이다.

본 활동은 드리미학교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세상에 나아갈 때 예수님 안에서 남을 섬기며 삶을 주도해 나가는 자주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배운다.

리더의 자질- 통찰력, 따뜻함, 냉철함

명량해전뿐만 아니라 임진왜란때 모든 전쟁을 상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던 군사력을 가졌지만, 목숨까지 다하며 명을 행하여 결국 승리로 이끌었다. 장군으로서의 이순신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를 품었던 따뜻한 리더의 자질을 닮아가고 싶다. 다른 이들을 이끌어 어떤 한 사람만이 통할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람이 모두라고 생각하며 국민 모두를 생각하며 살았다

1592년 5월7일, 임진왜란 처음으로 출전한 옥포해전을 앞두고 경상좌·우도 수군과 육군의 패배로 긴장하고 당황한 군사들에게 공포심과 전쟁경험의 부족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순신 장군님의 침착함과 냉철함 덕분이었다.

소개

이 수업은 이순신 장군님의 리더십을 알아가고 이순신 장군님을 알아가는 것을 넘어 우리가 리더가 되기위해 리더십을 알아갈 것이다.

리더십을 인정받은 위인인 이순신 장군님을 위주로 리더십이 뭔지 어떻게 해야 드리미 공동체안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리더처럼 살아갈 수 있는지 알아본다.

나중에는 예수님의 리더십과 이순신의 리더십을 비교해보는 수업이다.

의미있는 청중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들, 크리스천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들, 이순신 장군님의 업적과 그의 리더십이 알고 싶은 사람들,

자료 & 재료

‘이순신 정신과 리더십’ (저자: 김성수, 김영석, 김종대, 노승석)

‘어린이 청소년을 위 난중일기’ (저자:이순신 번역:박지숙)

‘최고의 리더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저자: 최종욱)

영화 ‘명량’, ‘한산’

내용 및 활동

Play

1. 이순신에 대한 이해

- 이순신 정신과 리더십
 -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난중일기
 - 이순신이 어떠한 리더였나?
 - 이순신의 삶과 가족
 - 이순신은 어떻게 리더가 되었을까?
 - 영화 (명량),(한산)으로 이순신 알아보기
- 영화를 본 뒤에 감상문 쓰기

2. 임진왜란 학습

이순신 장군 외에도 어떠한 장군들이 있을까?

3. 리더십이란 무엇일까?

세상에서 말하는 리더 알아보기

기독교가 말하는 리더 알아보기

최고의 리더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리더란 무엇일까?

리더에게 필요한 자질 알아보기

Performance

1. 이순신의 리더십 특성 정리

2. 예수님의 리더십과 이순신의 리더십 비교

3. 기독교와 세상에서 말하는 리더에 관한 내용 정리

Practice

1. 현충사, 충무공 이순신 기념관 방문 조사 소감문

2. 이순신과 예수님의 리더십에 관한 내용으로 발표하기

3.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책 쓰기 or 토론하기

빛음 2단계를 돌아보며

이번 빛음 2단계는 1단계보다는 외향상으로는 변한 것이 없지만 나의 내면의 생각이나 마음가짐이 많이 변하는 시기였던 것 같다.

첫번째는 그림으로 나를 알기이다.

나는 원래 그림을 잘 못그리기도 하고 그리는 것도 별로 안좋아해서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때 그냥 빨리 그려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보니 그림속에 있는 남자아이가 나랑 많이 닮아 있었다.

그림속에 나를 보면서 지금 내가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있고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 알아볼 수 있어서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된 수업이었다.

두번째는 배움과 성장이다.

이 수업은 4명의 형 누나들과 QnA를 한 뒤에 조를 나누어 대화를 하는 수업이었다. 형,누나들이 각자 하나씩 자신들이 배우고 느낀것을 설명해줬다.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조언은 우진이 형이 해줬던 조언이다. 무조건 시도하고 미친듯이 도전하라, 무조건 도전하라, 많은 것을 하다보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무조건 온다. 뒤에서 따라가기만 할거면 우리학교 특성상 우리학교에 있는 것보단 차라리 일반 고등학교를 가는 것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해주었을때 나는 항상 시도를 하는 것 보다는 안전하게 하던것만 하던 나를 다시 돌아보고 시도를 더 해보고 더 많은 도전을 해봐야 내가 할 것을 알 수 있겠구나를 깨달았다.

마지막으로 칭찬사전은 칭찬이 넌 잘생겼어,공부를 잘해, 귀여워 말고도 여러가지 칭찬 표현을 배우고 친구들과 서로 칭찬을 주고 받으면서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를 알게되고 나의 좋은점을 알게된 것 같다.

빛음 2단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성결이란 하나님 앞에서 기록하고 깨끗한 것이다. 라는 말이다.

앞으로 3년동안 해보고 싶은 것

앞으로 드리미학교 3년동안 성결하고 정직하고 절제하고 평화롭게 생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아직도 잘 안되는 용서,이웃을 사랑하는 것 등 많은 것을 배우면서 생활하고 싶다.

아직도 정직,성결,절제,평화 등 가치기초소양때 배웠지만 아직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서 드리미학교 3년을 다니면서 이 가치들을 조금더 자세히 알아가고싶다.

나는 드리미학교를 졸업하면 더이상 내가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있을 것이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드리미학교를 졸업하면 분명 세상의 유혹과 내 마음대로 살고싶은 마음이 많이 들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이겨내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 있었으면 한다.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 입니다.



나는 배웠다

나는 배웠다.

내가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여태껏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만 찾고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나 혼자서 살아가면 보잘 것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나는 항상 죄를 지으면서 사는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33〉